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 배지

2024. 7. 1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겠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5장 21절 ~ 24절

다 같이

-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에서는 ‘이트하레크 에트 하엘로힘’($\text{אֵתְּ הָאֱלֹהִים} - \text{יְחַלְקֶנּוּ}$)인데 직역해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됩니다. 여기서 ‘걷다’(יְחַלְקֶנּוּ , 할라크)는 단순한 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좋아’하고, ‘행함’으로 삶의 전반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것과 ‘함께’,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고 바라보며’ 삶 속에서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과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란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트 하엘로힘’($\text{אֵתְּ - הָאֱלֹהִים}$)입니다. 즉 ‘그 하나님과 함께’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에녹이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 줍니다. 창세기 5:1-20에 보여지는 단순한 족보 기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이를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가운데 내재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트’(אֵתְּ)는 ‘접근하다’, ‘달라붙다’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까움’이란 부사적 의미와 더불어 ‘~ 곁에’, ‘~ 안에’란 전치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한 상태였음을 밝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은 자신의 아내이며 인간에 불과한 하와의 말에 따라 행동했으며,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살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밀착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성경에 가운데 ‘에트바알’(אֵתְּ - לְבַב) ‘바알이 함께 있다’란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트 하엘로힘’($\text{אֵתְּ - הָאֱלֹהִים}$)과 대조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존경하며 그로 더불어 살기 원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의 딸과 사위가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가 된 까닭도 이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은 비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녹의 삶은 바알과 함께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을 살아 갈 때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축복합니다.

나눔 ----- 다같이

- 1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 2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랑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중보기도 ----- 다같이

-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 2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끊임 없이 찬양하는 가정 되도록
- 3 큰빛은혜교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이 넘쳐나도록
- 4 언제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 5 미국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도록
- 6 질병과 경기 침체,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운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마무리 기도 -----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과 함께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 영적 풍요로움과 천국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